

봉인 파일

봉투 A

이 파일은 읽지 말고 인쇄하세요. 인쇄한 페이지를 ‘A’라고
적은 봉투에 넣고 봉하세요.

다음 페이지 질문에 대한 답을 팀이 합의하기 전에는 열지 마세요.

A

봉투 A

사고였는가? 아니면 사일러스 렌은 어느 시간대에
사망했는가?

여기를 잘라 봉하세요. 팀이 답에 합의했을 때만 여세요.

살인이었다

사일러스 렌은 사고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. 검시관은 두개골 뒤쪽에서 각각 지름 약 2.5cm인 둥근 골절을 두 군데 따로 발견했습니다 — 추락으로 생기는 형태가 아닙니다.

그의 마지막 일지 기록인 ‘등 점검’은 **23:30**에 적혀 있습니다. 시계장치는 **01:30**에 감아야 했습니다. 그러나 끝내 감기지 않았습니다. 한 번 끝까지 감으면 약 4시간 10분 동안 돌아가므로, 21:30에 감은 등불은 키티웨이크호가 **01:52**에 불이 꺼졌다고 보고하기 직전에 멈췄습니다.

사일러스 렌은 **23:30**에서 **01:30** 사이에 살해되었습니다.

시간대의 시작을 23:10 보트 목격 시점으로 잡았거나, 끝을 등불이 꺼진 시점(약 01:40~01:52)으로 잡았다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.

그가 23:10에 기록한, 불을 켜지 않은 작은 배에도 주목하세요. 새 문서가 이어집니다.

번호	내용	발견 장소
1	혈흔, 약 8cm	철제 난간, 아래에서 세 번째 층계참 (전체 여섯 개)
2	마른 소금과 모래로 윤곽이 남은 발자국. 굽 있는 가죽 밑창, 남성용 약 11호. 렌 부인과 메릿 보안관보는 둘 다 고무장화를 신고 있었음.	계단 디딤판, 층계참 1~4. 탑 출입문(암반 쪽 문)에서 위로 이어짐
3	황동 블레이저 단추, 닛 무늬, “J. PRESS · NEW HAVEN” 각인	세 번째 층계참 바닥
4	시계장치를 감는 크랭크, 주철. 손잡이에 지름 약 2.5cm의 둥근 돌기	세 번째 층계참, 난간에 기대어 있음 (평소에는 등명실 걸이에 걸려 있음)
5	피해자의 장화, 고무, 9호	피해자가 착용

메릿 보안관보 수거. 1~4번은 기록만 하고 검시관에게 제출하지 않음.

저는 아홉 시에 근무를 시작해요. 4호실 신사분이 21:30쯤 외투를 입고 내려와서, 머리 좀 식히러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했어요. 제가 프런트에서 깜빡 졸기 전까지는 그분이 돌아오는 걸 못 봤어요.

문 소리에 잠이 깼는데, 두 시 조금 넘어서였어요. 그분이었어요. 바지가 무릎까지 젖어 있었고, 아무 말 없이 곧장 위층으로 올라갔어요.

여섯 시에 깨워 달라고 부탁해 두었거든요. 06:00에 객실로 전화했더니 바로 받았어요.

장부 번호	이름	시작	마감	합계
211	T. 렌	19:05	01:12	14.60달러 (미지불)

바텐더 J. 두셋: 토미는 밤새 저 의자에 앉아서 페팅길네 아들이랑 크리비지를 쳤어요. 뒤쪽 화장실에 한두 번 다녀온 게 다예요 — 5분이요. 한 시 십 분에 불을 다 켜고 전부 내보냈어요.

날짜	보트	이름 / 전화	출항	귀항	요금
10. 11.	2번 14피트 에빈루드	R. 코트 / 현지	06:00	13:30	12달러
10. 13.	3번 14피트 에빈루드	E. 로슨 / (617) 555-0148	21:40	01:40	현금 20달러 + 보증금 50달러
10. 14.	1번 16피트 존슨	앨비 / 하버 인	10:00	15:00	15달러

A-05

웨스콧 마린 앤드 퓨얼 — 급유 전표

봉투 A

날짜	시간	선박	갤런	결제
10. 13.	16:50	어선 키티웨이크호	디젤 60	외상
10. 13.	22:05	대여 3번	혼합유 6	현금
10. 14.	10:10	대여 1번	혼합유 5	현금

A-06

진술서 — 마리나 야간 관리인

봉투 A

열 시 이십 분 전쯤 웬 남자가 부잔교로 내려와서 밤새 쓸 보트를 빌리고 싶다고 했어요. 연락선은 끊겼다고 했더니 바다에 불일이 있다더군요. 현금으로 내고, 보증금 50달러를 맡기고, 이름이랑 보스턴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어요.

키가 컸어요. 도시 사람 구두를 신고 있었고요 – 저 구두 다 버리겠다고 생각했던 게 기억나요. 주유기에서 6갤런을 넣고는 항해등도 켜지 않고 방파제 밖으로 나갔어요. 그래서 뒤에 대고 소리를 쳤죠.

두 시 이십 분 전에 보트를 돌려줬는데, 무릎까지 흠뻑 젖어 있었어요. 보증금을 돌려받고는 언덕 위 여관 쪽으로 걸어갔어요.

A-07

코스털 보트 워크 — 조선소 청구서

봉투 A

코스털 보트 워크 · 포트 웨스콧

선박	샬리 B호 (D. 브로디)
상가(上架)	1979. 10. 10.
작업	엔진 탈거, 헤드 개스킷 교체, 선저 도장
진수	1979. 10. 20.

A-08

편지 — 미국 해안경비대가 I. 소렌슨에게

봉투 A

미국 해안경비대 · 제1관구 · 항로표지과

소렌슨 님께,

귀하가 10월 중 턴 포인트 등대의 자동화 평가 업무에 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 등대의 운영 상황을 조용히 관찰하되, 등대지기에게 신분을 밝히지 마십시오. 11월
 1일까지 보고하십시오.